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보팀

닭 뉴캐슬병 백신 품귀에 따른 긴급건의 예방약 생산 및 공급 강화키로

본회는 최근 닭 뉴캐슬병 백신이 품귀현상을 보여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기에 백신공급이 되도록 지난 13일 농림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긴급건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15일자 회신을 통해 뉴캐슬병 예방약인 B1과 리소타의 생산·공급이 원활해지도록 동물약품협회에 제조업체로 하여금 일선의 예방약 수요를 파악하여 예방약 생산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다.

또한 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제 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체 판단하에 뉴캐슬병 예방약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행 국가검정기준 중 필요한 항목만 지정하여 검정을 함으로써 동 예방약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닭 사육수 감소 폭 적어 부채 사육 감소에 걸림돌

양계산물 출하가격이 생산비 선을 밑돌자 사육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였으나 의외로 사육수수는 과잉공급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산란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적자 경영을 하면서도 실제로 사육수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채가 많고 상환자금은 고정된데 비해 난가하락으로 수입이 감소하자 사육을 늘려서 자금을 회전시키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부실은 부실대로 증가하고 생산량은 감소하지 않아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계산물 생산량은 앞으로 서서히 감소 경향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일부 농기들이 임식을 중단해야 과잉생산이 진정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을 하고 있다.

계란 품질저하 소비위축 우려

계절 및 뉴캐슬병 등 기타 영향

계란의 품질이 무더위 스트레스 및 뉴캐슬병 등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저하되는 양상으로 자칫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에는 노계환우로 인한 난질의 저하가 부분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킨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계란이 난질의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가져와 소비가 둔화된 시점에서 더 심각한 상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상당량의 계란이 저가에 시중에서 공급되면서 난가를 혼탁스럽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난질에 대한 등급제가 제도화되어 정상란과의 가격차가 시도된다면 이 같은 문제는 다소 시정될 전망이다.

닭 질병 방역 순회 세미나 확대 실시

중부권 이어 경남 및 전남에서 개최

본회는 닭 질병의 발생이 계속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긴급히 농림부에 지원을 요청하여 지난 5월 중부권에서 개최한 순회교육 세미나를 경남 및 중부권에서 개최한 순회교육 세미나를 경남 및 전남 광주에서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번 순회 세미나는 뉴캐슬병은 물론 가금인플루엔자와 가금티푸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의 강의를 통하여 양계농가들이 닭 질병 예방은 물론 발생시 조치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소개되어 양계농가의 질병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뉴캐슬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스터(50x60cm)로 제작하여 농장 입구에 부착케 하여 발생 예방은 물론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회 채란분과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전국계우회도 새 회장 선임

본회는 천강균 채란 담당 부회장 겸 채란분과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지난 8일 본회 채란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석 중인 채란분과위원장은 그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회 연기산란계분회 박찬우 고문을 채란분과위원장 직무대리로 선임하고 채란업계의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전국계우회연합회도 동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심준식 본회 천호 산란계 부회장을 선출하여 난가의 흐름을 원활히 해나가기로 하였다. 난기정보위원은 세명이 맡아서 종전과 같이 시행하되 새 회장이 10일 이내에 책임자를 선정하여 발표기로 일임하였다.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발족

본회 및 축산관련단체 공동 추진

뉴캐슬병 등 축산업계에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각종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근절을 위해 본회를 비롯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난 14일 수의과학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발족하고 상임본부장에 이우재 전의원을 추대하였다.

이번에 발족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각 축종별로 참여하되 독립적인 위치에서 업계의 의견에 따라 주요 가축질병의 확산방지 및 근절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동 본부의 운영은 공동으로 하게 되며 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간 차원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축산업의 정립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양계**